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5. 10. 30

트럼프와 관세 전쟁 정말 해치웠나..?

마켓 황산해
sh.hwang@ls-sec.co.kr

한국의 확실한 호재, 대미 협상 완료

29일 오후 7시경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트럼프 발언을 기점으로 애프터 마켓에서 수출 관련주들 급등.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등이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장기간 언더퍼폼 하던 현대차(NXT,+14.0%), 기아(+10.5%), 한국타이어(+5.0%) 등 자동차 밸류체인 전반 급등세 출현

7/30 미완의 무역협정 이후 지속적인 불확실성 재료였던 한미 협상.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방안과 품목 관세 등 주요 불안요인들이 완화. 이는 수출주를 비롯한 한국 증시가 큰 암초를 넘긴 호재임은 틀림없는 상황

최근 시장의 랠리는 AI 투자 사이클이 핵심 명분으로 그간 경기, 지정학, 무역과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불안요인이 해소되었다는 점, 특히 수출주의 이익 전망을 억누르던 무역 리스크의 제거는 긍정적. 금번 협상으로 수출주 이익 컨센 회복세가 가속화 될 수 있다면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 해소 가능. 발 디딜 곳이 필요한 한국 증시의 하단을 견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 기대

한미 무역협상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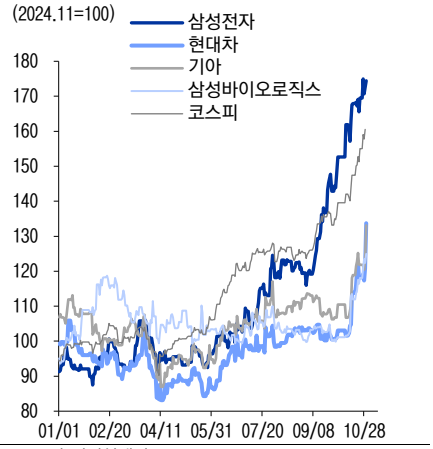
시장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①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금 투자 2천억, 조선업 협력 1.5천억으로 구성. 연간 투자 상한(200억달러)를 설정하며 외환시장 리스크 최소화. 더해 투자를 위한 SPC 구조 설계를 조정하며 수익 안정장치 확보. ②품목관세는 자동차의 경우 25%→15%로 인하. 그 외 품목은 수치가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의약품 부분에서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제네릭 등은 무관세 적용. 반도체 경우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 ③내러티브 측면에서의 변화도 주목. 그간 한국을 무역적자 축소, 투자 압박 대상으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 안보, 혁신 기술 경쟁에서의 협력 강조

무역 리스크, 정말 여기서 끝인 걸까?

긍정적 흐름 속, 향후 경계해야할 변수는 관세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상호 관세(IEEPA 기반)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 더해, 관련 이벤트가 임박했고 위헌 판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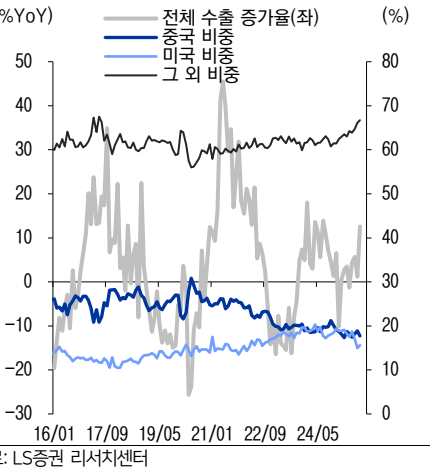
당장 11/5 트럼프 행정부의 구두 변론이 예정. 최종 판결은 12월말~2월초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변론 방청 의지까지 표시하며 중요성을 강조. 이는 폴리마켓상 위헌 판결 확률이 60%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이벤트이기 때문. 대법원이 6대3으로 보수성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삼권분립을 고수하는 전통파 법학자들의 비율도 지배적인 상황이 변수. 우파 법관 중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럿 대법관, 캐버노 대법관이 이에 해당. 여기에 트럼프 2기 임기 중 이민자, 셧다운 해고, 관세 등의 사안에서 사법부와 잦은 마찰이 발생한 점도 우려 요인

그림1 **눌려 있던 수출주의 단계적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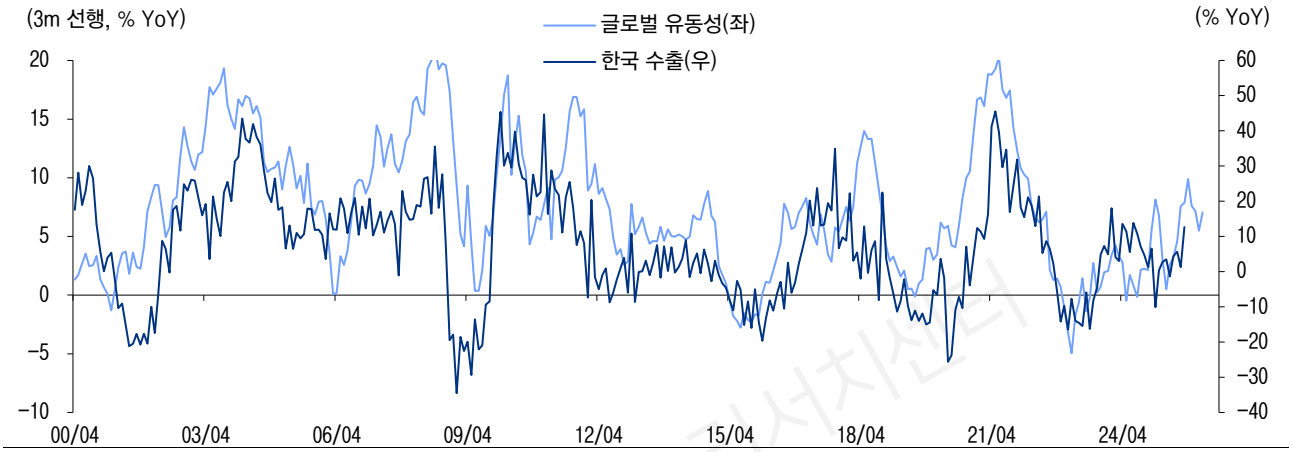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대미, 대중 수출 비중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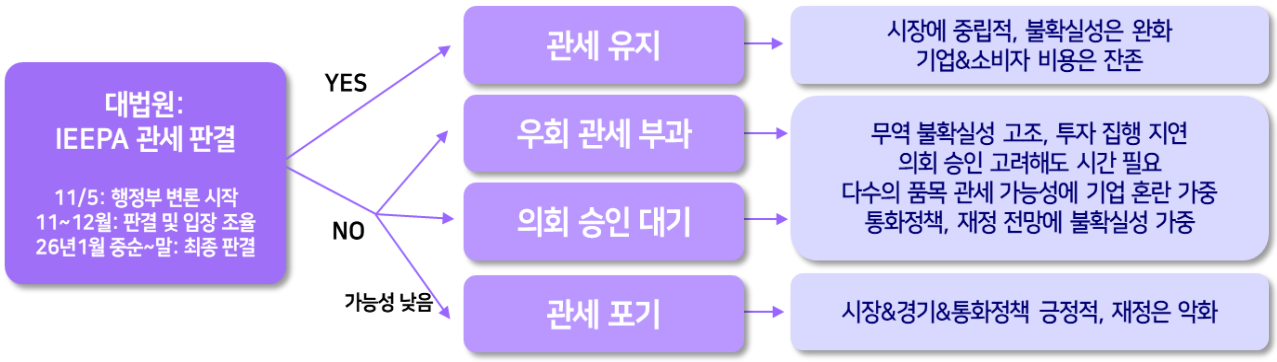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이제 수출이 유동성 장세를 즐길 수 있을까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트럼프 vs 대법원, IEEPA 판결 시나리오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IEPPA 상호 관세 대체 후보군

	주 내용	현재 적용	제한점	시점
Section 122	150일 시한으로 모든 수입품에 최대 15% 부과 가능	X	150일 이후 의회 승인 필요	즉시
Section 232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산업에 부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초기 조사 및 공청회 필요	적용까지 수개월
Section 301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1기 대 중국	초기 조사 및 공청회 필요	수주~수개월
Section 338	미 무역 차별국에 50%까지 부과	사용된 적 없음	WTO 위반국 법적 분쟁 대상	30일 가량
Section 201	자국 산업에 대한 구제 조치로 관세 부과 가능	태양광, 세탁기 등	조사 필요 이후 대통령 재량	수개월~반년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대미 품목별 수출 증가율 (9 월까지 누계)**

순위	HS 코드	단순 분류 설명	상세 설명	수출금액 (USD,mln)	수출 증가율
1	8703	자동차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22,649	-14.3
2	8473	반도체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7,696	41.0
3	8708	자동차부품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5,158	-4.2
4	2710	석유제품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4,133	3.0
5	8523	SSD, 저장장치	디스크 · 테이프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3,404	0.6
6	8507	배터리류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2,664	-3.0
7	8504	전력기기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1,618	28.6
8	3002	의약품, 바이오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 그 밖의 혈액 분…	1,408	47.9
9	3304	화장품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	1,331	14.8
10	8517	휴대폰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	1,182	249.5
11	8479	기계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1,029	-46.2
12	8418	가전(냉장,냉동)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1,012	-32.5
13	2841	양극재 등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955	73.4
14	8544	전선, 케이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	852	30.6
15	8407	엔진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772	49.5
16	8486	반도체 장비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 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	676	-10.0
17	8537	전력기기(배전 등)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	658	14.2
18	4011	타이어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651	3.5
19	8419	가전(가열, 정수기, 세탁기 등)	가열 · 조리 · 배소(焙燒) · 증류 · 정류 · 살균 · 저온살균 · 증기가열 · 건조 · 증발 · 응축 · 냉.....	642	-9.0
20	7306	철강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	623	-12.8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